



김 동문은 후배들에게 “늘 현실을 도약대 삼아 진취적으로 살아간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동희 기자)

“한자와 국어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 고전 번역은 역사와 문화 보존하는 것”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길거리에 외국어가 더욱 눈에 밝히는 요즘 우리말과 한자는 일명 ‘올드 스쿨’로 여겨진다. 이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류에도 여전히 한자에 새겨진 우리나라 역사 DNA를 이어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난 6월, 한국고전번역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김언중(국어국문학 1971) 동문이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김 동문은 4년째 유튜브로 ‘한자 알리기’를 놓지 않고 있다. 낮에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원장인 그가 저녁이면 옷을 갈아입고 철판 앞에서 동력은 무엇일까.

삶을 바꾼 귀인, 박노춘과의 만남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김 동문은 문에 창작과 한자에 능한 학생이었다.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대학시절이지만 그 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한 듯했다. “박노춘 선생님(국문학자)이 나를 발견하시고는 되게

좋아하시면서, 너는 고전 문학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문에 창작도 좋지만 고전 문학을 연구해보라고 하셨다”며 대학 시절 박노춘 선생과의 만남이 본인의 삶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박 선생은 자신의 교수 연구실 열쇠를 선물 내어줄 만큼 김 동문을 신임했다. 김 동문은 “당시 박 선생님께서 외부 강의로 당신이 연구실에 잘 없으니, 그 방을 내 연구실로 쓰라고 하셨다”며 “그 때 그곳에서 원하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김 동문에 대한 주변인의 적극적인 지원은 그가 ‘고전 문학’을 전공으로 삼는데 큰 동기가 됐다.

‘한잘알’ 유튜브 채널도 운영

그렇게 한문학과 교수가 된 김 동문의 강의는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 동문은 서울남부구치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어쩌면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강의 주제는 ‘탈옥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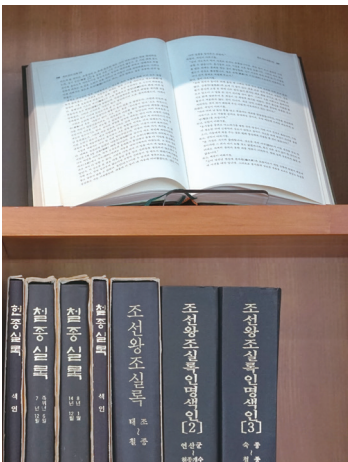
이었다. 이처럼 다소 과격적인 주제 탓에 “그날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싶어 간수 수십 명이 강의를 보러왔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우려와 달리 재소자에게 전한 탈옥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에서의 탈옥’이었다. 그러면서 ‘인생은 개관(蓋棺)론적’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때의 ‘개관’은 뚜껑 개(蓋)와 관 관(棺)이 결합한 것으로, 관 뚜껑을 닫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감옥에서 남은 삶을 반성하고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라”는 김 동문만의 격려 방식이었다.

또한 김 동문은 사법연수원에서 범조인을 대상으로 한자 ‘법(法)’의 원형에 담긴 의미를 강의하기도 했다. “범조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황당해하는 반응이 있었다”며 “강의 주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을 땐 육법전서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내용에 모두가 집중해서 듣더라”고 당시를 회상했

다. 김 동문은 특유의 유쾌함으로 한자의 매력을 다방면에 알렸다. 그리고 김 동문의 한자 교육 의지는 교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유튜브라는 새로운 교탁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 동문은 ‘한잘알:한자잘알려드립니다’(한잘알)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漢)자를 머리에 인 채 다소 우스꽝스러운 프로필 사진에는 한자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재밌게 다가가겠다는 김 동문이 의지가 엿보인다. 김 동문은 해당 채널에서 한자뿐만 아니라 <논어>, <중용>, <대학> 등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있다.

김 동문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한자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또한 김 동문은 “우리 국어가 엉망이 돼 가고 있는 것은 문화적 위축이자 정체성의 허물어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잘알’은 어느덧 1만 명의 구독자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익 창출은 일절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고전번역원 1층에는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이 전시돼 있다. (사진=김동희 기자)

하지 않고 있다. “촬영이 끝나면 새벽 1시가 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종의 사명감으로 일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행상방(志行上方) 분복하비(分福下比)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나보다 못한 이와 비교하라’는 의미의 ‘지행상방(志行上方) 분복하비(分福下比)’는 김 동문과 일생을 동반한 신조다. 늘 주어진 현실에 불만하기보다는 만족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김 동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원장 취임 역시 ‘지행상방 분복하비’에 따라 살아온 결과라 믿고 있었다. 김 동문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오며 자연스레 형성된 인간관계와 업적들이 어공, 즉 어쩌다 공무원이 되게 했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문집 및 역사 문헌을 번역해 한자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한글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김 동문의 뜻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 동문은 “국어의 특성상 시대가 지나면 읽기 어렵기에 수십 년 뒤 후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번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동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우리 고전의 보존 및 복원에 힘쓰고 있는 직원 역시 ‘지행상방 분복하비’ 정신을 지닌 선비라고 칭찬했다. “보수에 비해 강도 높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부심으로 희생하고 있다”며 “이런 직원들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을 삶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김 동문의 눈에는 어떠한 결연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김 동문의 모습은 세대를 불문하고 귀감이 되고 있다.